

DDA, 2004년 12월 농업협상 동향

제28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1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12월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회의에서 1차적으로 논의되었던 주제들에 관해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고 내년 2월에 1차적으로 논의할 주제에 관해 각국이 자신의 입장으로 처음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모델리티 초안 제시에 관해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등 향후 협상 진행이 가속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1. 쟁점별 논의 사항

1.1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SSM)

합의된 기본골격에 따르면 선진국이 SSG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도국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SSM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SSM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동기준과 관련하여 그룹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기존의 SSG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의 두 가지 발동기준 중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발동할 수 있게 한데 반해 SSM의 발동기준으로서 물량기준만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발동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개도국 그룹이 이에 반발하며 간단한 방식을 통해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시장접근 분야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시장접근 분야 전반에 대해서 미국, G20, 케언즈 그룹 등은 조화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시장 접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선형방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감축, 관세상한 도입 및 관세구조 단순화 등을 주장하였으나 수입국 그룹인 G10과 EU는 UR 방식을 이용하여 관세감축을 점진적으로 할 것과 민감품목 및 NT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출입국간 입장차가 커 합의도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감축공식은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종가세 전환 시기를 관세감축공식 확정 이전으로 할 것인지 관세감축공식 등 시장접근 분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종가세로 전환할 것인지 논란이 되어 비종가세의 종가세 전환 시기와 관세감축공식 확정 시기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종가세의 전환과 관련하여 실제 이용할 자료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해 논의가 계속되었고 의장은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하여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1.3. 블루박스

지난 8월 1일 기본골격이 합의될 당시 쟁점으로 부상한 블루박스의 지급요건에 관해 1차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블루박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농업개혁 과정에서의 블루박스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며 엄격한 기준설정에 반대하였으며 이에 대해 EU와 G10이 동조하였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은 블루박스의 지원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도록 주장하였으며 G20은 AMS에 상한을 정하는 것과 같이 블루박스에도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여 그룹간 견해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12월 특별회의 평가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관세감축공식과 블루박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그룹간 의견차가 매우 커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협상을 진전시키기 보다는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중점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C는 G10 및 G33 등의 협상 그룹을 초청하여 신임 농업담당 집행위원이 직접 EC의 입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G20과 G10도 각각 타그룹간의 의견 조율에 나서는 등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논의 의제에 관해서는 협상 그룹별로 기존의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쳐 협상이 심도있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본골격이 합의된 이후 세 차례의 농업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의제별로 구체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하게 되어 향후 협상 일정이 주목된다. 다음 29차 농업협상은 내년 2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개최되며 이전에 논의되었던 의제 중 일부와 국내보조감축공식 및 수출제한, 특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협상 일정과 관련하여 그로서 의장은 7월 회의에서 모델리티 1차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협상을 빠른 속도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